

슬로바키아 중부 지방 전통 목관 악기, 푸야라

‘푸야라’는 전통적으로 슬로바키아 중부 지방의 양치기들이 연주하던 목관 악기로 점차 사라져 가는 유구한 양치기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유산이다.

Music to Watch Sheep By

In Slovakia's time-warped Podpol'anie region, the *fujara*, a musical instrument that takes years to make, is one of the last surviving elements of traditional shepherding culture.





암브로조바는 “푸아라는 단순히 악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뗄 수 없는 소중한 일부”라고 말했다.

과거 슬로바키아 시골의 삶은 척박했다. 포트폴아니에 지역 남성들에게 양 치는 일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었지만, 그들에겐 양을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자구책으로 양치기를 고용해 마을에서 먼 구릉지로 양 떼를 데려가 풀을 먹이는 일을 대신하게 했다. 양치기와 조수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야영하며 양을 돌봤다. 사회와 단절되고 큰 사건이 일어나도 의지할 데라고는 서로밖에 없던 그 시절, 양치기들은 요리사이자 건축가, 수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자인’이었다.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푸아라는 양치기들의 외롭고 위험천만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적절함을

슬로바키아 포트폴아니에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들(왼쪽 페이지). 양치기 유라이 마에르(아래). 목관 악기 ‘푸아라’는 마에르 같은 양치기의 삶에서 탄생했다.

Men in traditional dress at a folk festival in Slovakia’s Podpol’anie region (opposite), where the historical shepherding lifestyle — still lived by Juraj Majer (below) — gave birth to the *fujara*.

to experience, insomuch as is possible today,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fujara*, an outlandishly large three-fingered shepherd’s flute, came into being. “The *fujara* isn’t just an instrument but an important part of a traditional way of life,” says Jana Ambrózová of the Department of Ethnology and Ethnomusicology at Constantine the Philosopher University in Nitra.

Times were tough in the Slovak countryside of old. The *gazdovia*, heads of families in the scattered villages of Podpol’anie, employed shepherds to take their sheep into the hills to graze. The shepherds and their assistants would be gone from early spring to fall, tending the sheep in remote encampments not dissimilar to Majer’s *salaš*. During this time, far from civilization and with no recourse in crises but each other, the shepherds doubled as cooks, builders, veterinarians and, above all, survivors.

The *fujara*, which is now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the shepherds’ means of relaxation and the instrument by which they expressed their lonely,

“슬로바키아의 심장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십 년간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렸을 양(羊) 목장 위쪽 수풀이 우거진 언덕을 가리키며 유라이 마에르가 웃었다. 넓게 펼쳐진 푸른 목초지로 양 목에 걸린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녁 무렵 마에르는 양들을 한곳으로 몰아넣은 뒤에야 자신의 오두막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오두막 바닥에는 다진 흙이 깔려 있고 한가운데에 난로가 있었다. 우리는 난로에 둘러앉아 화려한 장식을 새긴 나무 잔에 양젖 음료인 ‘진치차’를 담아 마셨다.

마에르는 전통 양치기 복장인 통 넓은 흰색 셔츠와 치마를 벗고 보다 편한 격자무늬 셔츠와 카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양단으로 만든 검은색 재킷, 짙은 색 모자, 목직한 장화는 그대로였다. 바깥 입은 옷은 양 목장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21세기의 흔적이었다. 낡고 오래된 치즈 제조기부터 까맣게 그을린 채 처마에 걸린 냄비까지, 오두막 안의 다른 모든 물건은 20세기나 19세기, 심지어 18세기 물건처럼 보였다.

내가 슬로바키아 포트폴아니에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손가락 구멍이 세 개인 아주 긴 목관 악기 ‘푸아라’에 대해 알고 싶어서였다. 슬로바키아 서부 도시인 니트라에 위치한 콘스탄틴 더 필로서퍼 대학에서 민족학 및 민족음악학을 가르치는 야나

“Welcome to the center of Slovakia,” Juraj Majer says with a grin. “That’s it, right there.” He indicates a forested knoll above his *salaš*, the sheep farm he has manned, largely single-handedly, for decades. Around me, vast, rolling fields of grass resound with the clang of bells worn by the sheep Majer is herding back into the fold for the evening. When his task is done, he shows me into his hut. It has a rudimentary packed-earth floor and is dominated by a hearth, around which we sit and sip *žinčica*, a drink made from sheep’s milk, from ornate wooden tankards.

Majer has partially changed out of his traditional shepherd’s garb, jettisoning the baggy white shirt and skirt in favor of a plaid shirt and combat trousers, but retaining the brocaded black jacket, dark hat and heavy boots. His new clothes are the only signs of 21st-century life within the *salaš*. Everything else could be 20th, 19th, even 18th, from the antiquated cheese-making equipment to the pots hanging from the smoke-blackened eaves.

I’ve come to the Podpol’anie region of Slovakia



달래 주던 악기다. 최대 2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어 양 떼를 지키면서 기댈 수 있는 지팡이로도 유용했다. 다른 목관 악기보다 울림이 크고 깊으며 구슬픈 소리가 나는데, 양들이 이 악기 소리에 안정감을 느끼며 풀을 뜯는다고 한다.

다른 악기 없이 단독으로 연주하는 푸아라는 양치기만큼이나 외로운 악기다. 한 곡의 연주가 끝나면 그들은 다음 곡을 잇따라 불었다. 노래를 곁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청중의 반응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보통은 듣는 이 하나 없는 외딴 언덕배기에서 연주되었으니까. 함께 부르는 전형적인 노랫말에서 푸아라는 종종 양치기 정신의 정수로 묘사된다.

‘양 우리 옆에서 한 양치기가 푸아라를 불기 시작하네 / 평생 해 온 이 일을 계속하기에 그는 너무 늙었지 / 아, 나의 양들을 조수들이 몰고 갔네 / 이제 내 곁에 남은 소중한 푸아라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구나’

포트폴아니에의 유명 푸아라 연주자들은 마예르를 찾아와 진치차를 구매하기도 하고, 가끔 그의 목장에서 연주하며 몇 세기 전 중부 슬로바키아의 목가적인 삶을 재현하기도 한다. “푸아라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듯 낭만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마예르의 양 목장이 이 지역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목장이라고 주장하는 전통 악기 장인 루보미르 타타르카가 말했다. “푸아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악기였어요. 양치기들은 물론, 양치기들이 간혹 숨겨 주던 도망자들과도 관련 있었죠. 요즘엔 인터넷과 교통이 발달해 도시와 시골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푸아라 역시 그 의미가 퇴색했지요.”

푸아라를 말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 악기가 생겨난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서서히 소멸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마예르의 목장이나 양치기의 삶을 기억하는 나이 든 세대의 머릿속뿐이다.

로만 말라티네츠는 데트바 민속 축제의 총감독이다.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는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말라티네츠는 푸아라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다. 다만 타타르카처럼 비판적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 “수만 명이 다양한 전통 공연을 보러 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푸아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연주를 듣고 싶어 하죠. 슬로바키아인만이 공감할 수 있는 고유의 정서가 흘러서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축제 마지막 날 오후에 열리는, 모든 연주자와 무용수가 한데 어우러지는 떠들썩한 즉흥 공연 방식인 피날레 공연을 앞두고 말라티네츠와 다른 공연자들이 화려한 전통 의상으로 돌아입었다. 그런데 공연의 시작은 전혀 판판이다. 푸아라 연주자 세 명이 무대 위에서 엄숙하게 연주를 시작하고, 관객들은

danger-fraught lives. Its sound, a melancholy warble with a deeper, more resonant tone than other flutes, is romantically believed not only to have entertained shepherds, but also to have helped sheep graze more peacefully. Due to their exceptional length, *fujaras* were also staffs to lean on while watching the flock. The instrument is as solitary as its early players were — intended to be played alone, apart, with a spate of playing and then one of singing, in a performance often carried out with no witness but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ccompanying verses regularly place the *fujara* as the very embodiment of the shepherd spirit:

Yeah, by the sheep pen a shepherd started to play the fujara / yeah, he came to the end of his life’s work, he’s too old for it / Yeah, my sheep, my sheep, were taken by my helpers / and my dear fujara mourns in deep sorrow.

Several famous Podpol’anie *fujara* players come to buy *žinčica* from Majer, and sometimes they still play at his *salaš*, emulating the pastoral Central Slovak lifestyle of previous centuries. “It’s easy to see how the *fujara* assumed such a romantic place in our culture,” says L’ubomír Tatarka, a craftsman of traditional instruments who holds Majer’s *salaš* as the last true example of its kind in the area. “This was the instrument of common people. Not only was it linked with shepherds, but with outlaws too, whom shepherds would often protect. Now you have the internet and 4x4s. Distinctions between village and countryside are lost, so the meaning of the *fujara* is lost.”

Perhaps the most poignant aspect of the *fujara*’s history is that while the world in which it developed isn’t dead, it is dying. It remains primarily on farms such as Majer’s and in the memories of members of the older generation, some of whom can still remember the shepherding lifestyle.

Roman Malatinec is a director of the city of Detva’s folk festival, the region’s most important. He cherishes the *fujara*’s idiosyncratic heritage, but doesn’t think along the extreme lines Tatarka does. “Tens of thousands attend this festival,” he says. “They come of course for all the different traditional performances, but each one of them expects to hear the *fujara*. It speaks to Slovaks still, even if they don’t understand exactly what it says. Our job is to preserve it —

최대 2미터에 달하는 푸아라는 큰 관에 마우스피스가 달린 작은 관을 연결해 만든다. *Fujaras* can be 2m long and have a smaller pipe with a mouthpiece attached to the main barrel.

조용히 애달픈 가락을 경청한다. 연주자들은 푸아라의 높은음과 낮은음을 교대로 빠르게 연주하며 이 악기의 역량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로즈푸크’라는 인상적인 트릴 연주법을 선보인다. 그들의 애잔한 연주가 끝난 뒤에야 축제의 피날레를 알리는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푸아라는 양상블 악기가 아니다. 푸아라 공연은 늘 단독으로 이뤄지고, 그것이 푸아라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청중은 푸아라 연주를 듣고자 하지만, 푸아라 연주자는 자신을 위해 연주한다. “슬로바키아에는 100여 종의 전통 관악기가 있지만, 푸아라만큼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해석이 분분한 악기는 없죠.” 푸아라 음악 권위자로 알려진 카롤 코치크의 말이다.

“옛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은 오직 남자만 푸아라 연주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자 양치기가 없었기 때문인데, 사회와 단절돼 초야를 떠돌던 양치기에게는 푸아라가 일종의 친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푸아라에 장식을 해도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들이 허용하는 유일한 장식은 과거 푸아라가 놓인 오두막의 난로 연기로 생긴 검은 자국뿐이죠.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있어요. 다니엘 호몰라 같은 연주자들은 전통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색을 덧입히고 있죠.”

for them, for everyone.”

“We have 100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in Slovakia, but no other captures the imagination or divides opinion like the *fujara*,” explains Karol Kočík, an authority on the subject. “There are the traditionalists, who believe only men should play *fujaras*, because shepherds were never women. The *fujara* was their woman. There are ultra-traditionalists, who even disapprove of the instrument’s decoration. For them, a *fujara*’s only ornamentation should be the black stains from the hearth smoke in the *salaš* hut where it was once kept. And there are liberals, too, modern players like Daniel Homola, who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repertoire and add their own lyrics.”

셀레츠키의 작업실에서 푸아라 제작의 첫 단계인 목재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아래). 산성 마감 처리제를 이용해 푸아라 특유의 주황빛을 입힌다(오른쪽 페이지).

Drying wood and *fujaras* in the early stages of production in Ondrej Selecký’s workshop (below). Selecký uses an acid finish to give *fujaras* their typical orange-yellow hue (opposite).



전통의 계승 전통주의든 자유주의든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푸아라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이다. 사라져 가던 이 악기가 부활한 이유를 1966년 시작된 테트바 민속 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또 푸아라의 계승과 발전에 지난 60~70년 동안 뛰어난 솜씨와 장인 정신으로 푸아라의 명성을 드높인 악기 제작자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반스카비스트리차 위쪽의 구릉지에서 푸아라 제작자이자 연주자인 온드레이 셀레츠키를 만났다. 셀레츠키는 보다 정교한 푸아라 제작을 위해 악기의 형태를 만드는 곳과 장식을 하는 곳, 이렇게 두 작업실을 따로 운영한다.

셀레츠키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따라 가지런히 쌓여 있는 적당한 길이의 나뭇더미가 눈길을 끌었다. 푸아라 제작의 첫 단계이자,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 나무 건조 과정이다. 그는 “너무 흰 푸아라에서는 장사꾼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습한 땅에서 자란 목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재는 심하게 휘어 있으니까요. 배수가 잘되는 석회암 토양의 마른땅에서 곧게 자란 양질의 목재를 찾아야 해요. 물푸레나무는 섬유가 거칠어 구멍을 뚫기 힘든 편이죠. 딱총나무가 제일 작업하기 좋아요.”

악기 본체에 세 개의 손가락 구멍과 공기를 불어 넣는 구멍을

STANDING ALONE What everyone agrees on i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fujara*. The instrument’s revival in recent decades is often attributed to the founding of festivals like Detva’s and to the instrument’s makers, who in the last 60 or 70 years have given the flute its reputation for exquisite workmanship. I drive into the hills above Banská Bystrica to meet *fujara* maker and musician Ondrej Selecký, whose *fujara*-crafting process is so refined he requires two workshops, one for the initial shaping of the instrument and another for the decoration.

In Selecký’s workshop, lengths of wood are stacked and undergoing the first phase of production, drying, which can take years. “If the *fujara* is too crooked,” Selecký says, “you smell business. Wood shouldn’t be chosen hurriedly from damp ground. Wood like that is too curved. You have to go high into the hills, to dry land and well-drained limestone soil, to find the straightest, finest pieces.”

Boring the wood, from the main tube to the three finger holes and mouthpiece, is notoriously difficult, especially

뚫는 작업은 대단히 까다롭다. 건조 과정에서 목재가 수축하면서 구멍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미터에 달하는 나무 속을 균일하게 파내는 작업도 만만찮은 기술과 수고를 요한다. 셀레츠키는 천공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도구를 개발했고, 그것을 수도관 끝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수도관은 이 작업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길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숲에서 베어진 지 몇 년이 흐른 후에야 푸아라용 목재는 비로소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 장식 과정이 그것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푸아라에는 독특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장식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두꺼운 종이 위에 문양을 그린 다음, 악기 위에 종이를 대고 그 무늬를 진하게 새긴다. 셀레츠키는 문양에 색을 입히기 위해 펜촉이 가느다란 카트리지식 만년필을 변형한 자신만의 도구를 이용한다. 다른 악기 제작자들은 새겨진 무늬 위에 금이나 구리를 꼬아서 만든 끈을 박기도 한다. 마무리는 산성 마감 처리제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푸아라 특유의 주황빛이 입혀진다.

가늘고 긴, 수년에 걸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이 슬로바키아의 전통 목관 악기는 이렇게 완성된다. 연주자의 손이 구멍에 닿는 위치를 고려해 첫 번째 관에 두 번째 관을 연결하고 마우스피스를 배치해야 하는 악기, 꺾자 양들 말고는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 탄생한 악기다.

“푸아라를 연주하는 양치기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초원 위를 떠도는 자신의 삶이 어떤지였을 거예요.” 데트바 민속 축제에서 만난 푸아라 명연주자 블라디미르 호몰라의 말이다. 윤기 흐르는 콧수염과 장화 위에 꽃은 양치기용 칼 때문인지, 그는 현대판 슬로바키아 민족 영웅의 전형 같았다. “그래서 푸아라 노래에는 비애가 담겨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함께 담겨 있죠. 역사적으로 푸아라는 연주자가 혼자 선 자세로, 그것도 산골에서 혼자 연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푸아라의 음색이 양치기가 생활한 환경을 닮았다고 해요. 새의 지저귐이라든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은 것 말이죠.”

마예르의 목장을 떠나던 날 밤, 나는 차를 타고 이곳 포트폴아니에 지명의 어원이기도 한 폴아나 언덕에서 내려왔다. 포트폴아니에는 직역하면 ‘폴아나 언덕 아래’라는 뜻인데, 아마도 옛사람들은 지금은 잊힌 이 고지대를 늘 올려다보곤 했을 것이다. 폴아나 언덕을 바라보며 자연의 영원성처럼 삶의 순환을 위해 양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리라. 어두워지는 산길을 따라서 다시 마을로 귀환하기를. 포트폴아니에가 이 나라의 심장이라면, 푸아라는 필시 이 나라의 영혼일 것이다.

글 루크 워터슨 사진 케리 크리스티아니

as drying wood contracts and displaces previous incisions. A *fujara* can measure 2m in length, too, and no tool on the market either has that reach or can easily navigate the incongruities of the wood. Selecký invents his own tools, often coupling them onto the ends of water pipes, which are long, firm and flexible enough for the task.

Years after it was cut from the wild, a *fujara* enters the final stage of production: its embellishment, which can take many months more. Every properly made *fujara* has its own unique ornamentation. Designs are drawn on a card first, then etched into the body of the instrument. Selecký colors his engravings with an adapted cartridge pen. Other artisans hammer gold or copper braiding into their engravings. Then an acid finish is often applied, which lends *fujaras* their usual orange-yellow hue.

And there it stands, ungainly yet intricate, a flute so preposterously long it requires a second pipe to be attached just so that the mouthpiece can be placed in a spot where the player can still reach the finger holes — an instrument that was originally designed to have no one listening to it being played at all, apart from the odd sheep.

“The only considerations of the *fujara* player would have been his own emotions, what his life was like and where he was living,” says Vladimír Homola, a *fujara* virtuoso whose lustrous mustache and the shepherd’s knife tucked into the top of his boot render him the epitome of a latter-day Slovak folk hero. “That’s why you have the melancholy in songs, but why the beauty of nature comes across too. Historically, you’d play the *fujara* standing up, standing by yourself, standing in the countryside. Some even think the sound imitates the shepherd’s surroundings — birds calling, streams bubbling.”

On the night I leave Majer’s *salaš*, I drive away from Pol’ana, the hill from which the region’s name derives. Podpol’anie translates as “under Pol’ana,” as if everyone in this area once looked up to this now forgotten highland. Many must certainly have once done just that, waiting for the safe return of their sheep so that life could continue its cycle. Down the darkening track. Back to civilization. If Podpol’anie is indeed the country’s heart, the *fujara* is certainly its soul. By Luke Waterson Photographs by Kerry Christiani



블라디미르 호몰라는 푸아라가 양치기의 외로운 마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같이 담아내는 악기라고 말한다.
Fujara virtuoso Vladimír Homola says the flute captures both the shepherd's melancholy and the beauty of nature.